



## 하우스 키팅 (HOUSE-KEEPING)

민 철 기

하우스 키팅을 우리 말로 옮겨 놓으면 정리·정돈 썸에 해당되는 낱말이라 생각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나 최선의 정리정돈에 힘써서,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야기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그 뜻이 담겨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항목인 동시에 꼭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다.

이 정리정돈은 비단 안전관리 분야에서 뿐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건 꼭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안전이다. 주위 환경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으면 우선 보는 이로 하여금 또는 그 장소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일의 능률도 높여준다.

한 가정을 예로 들면, 지저분한 부엌을 대하게 되면 그 집 주부의 음식솜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식욕을 돋구기에는 미흡할 것이다.

학생들의 공부방을 한번 들여다 보자. 정리정돈이 잘 된 책꽂이, 책상 주위, 공간을 대하게 된다면 어딘지 모르게 믿음직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을 연상하게 된

다. 이와 반대로 여기저기 널려진 책과 노트, 멋대로 팽개쳐진 옷들이 방안을 메우고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학생에게 많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건설현장이나 제조회사의 작업장에서, 정리정돈(HOUSE KEEPING)이 미흡해서 크고 작은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예는 매우 많다.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자재, 공구, 장비들이 수시로 그 장소를 바꿔가며 쌓였다가 흩어지곤 한다. 그날 그날의 정리정돈에 관심을 쏟지 않으면 지나가는 작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사고로 연결되어 끝내는 상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사고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통로를 확보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위험 장소는 적절한 표지로 사전에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작업이 끝난 후 쓰레기를 모아서 치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기술자와 선진국의 기술자를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다. 외국의 기술자들은 작업에 임할 때 스스로 자신

의 안전 장구를 챙겨 보호구로 사용하고 착용하는 우직(?)함을 잊지 않는다고 지난 호에서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자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오만한 편이고 비사고적이다. 즉, 안전장구는 햇병아리 같은 신출내기 기술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관록이 붙은 고참들에게는 부질없다는 태도이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정리정돈 면에서도 이와 비슷하다. 외국의 기술자는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주위를 깨끗이 치우고 일어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일을 끝내고도 뒷치닥거리는 다른 청소부들이 하는 일로 오만하고 있다. 쓰레기나 뒷처리를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위신에 큰 손상이라도 주는 것처럼 싫어하고 거피한다.

가정에서의 정리정돈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안전 생활에서 이 정리정돈은 중요한 과제이며, 안전의식은 바로 여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비록 넓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집안이 깨끗하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지키는 경우와, 넓은 공간을 쓴다 하더라도 정리정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집안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어수선했던 집안에서 사고 발생율이 많고 여러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은 지극히 평범한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하우스 키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지저분하고 어수선했던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정리정돈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건전한 생각은 건전한 신체에서”라는 말처럼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꾸미는 습관이야말로 훌륭한 창의력을 낳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정돈과 연관된 경험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수년 전 차를 수리하려 어느 정비업소를 찾은 일이 있었다. 미리 소개를 받고 찾아간 그 정비업소는 연로한 두분의 기술자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다른 업소에 비해 규모가 반 정도 밖에 안되는 곳이었지만 그 비좁은 공간을 잘 이용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그 흔한 ‘셋조각 하나 흐트러져 있지 않았다. 차를 수리하기 위해 기술자가 가지고 나온 공구상자 또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와 그분의 기술은 불문가지처럼 여겨져서 마음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나이도 이미 70줄에 들어서 있었고, 그 기술과 태도는 어려서부터 좋은 선배를 통해 익힌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분 생각을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젊은 기술자 지망생들에게 그의 좋은 자세, 특히 정리정돈이 기술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를 일깨우는데 앞장서고 있다.

〈필자=안전전문가〉